

생활공간에 있어서 노점상의 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Stall Keeper Utilization and Improvement in Life Area

김 한 수*

Kim, Han Su

양 민 화**

Yang, Min Haw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all keepers in Taegu area. Based on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stall keepers and store owners, the following results are derived. 1) The paddlers around residential areas bring about unsanitary living condition by neglecting cleaning after business and leaving their equipments for business continuation. 2) Residents do not show strong malice to stall keepers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most stall keepers do their business in order to keep their living. 3) Store owners know that the existence of stall keepers attracts more customers to their stores, thus show positive attitudes towards stall keepers. By summarizing above results, we suggest that government authority should search some alternative policies rather than strict legal enforcements.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과소비와 기업의 부실경영 등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로 대량 실업상태가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상으로 나서고 있어 도시지역 특히 주거지 주변 곳곳이 노점상으로 넘쳐나고 있다¹⁾. 특히 IMF한파 이후 생계형 노점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행정당국은 노점상에 대한 대책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노점상의 입지는 노점에 종사하는 당사자, 이용자, 주변 상점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에 행정당국이 개입하여 노점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점상에 대한 활동특성 등 구체적으로 밝힌 선행 연구결과가 있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노점 이용자들의 의식과 인근 상가와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한 후 지금까지 연구된 노점상의 속성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시켜 장래 노점상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주거지, 시장 등의 노점상 이용자와 인근상인을 대상으로 노점상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는 것으로, 내용적 범위는 노점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노점상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인근 상인들과의 상호기여도와 의식에 관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이용자와 주변 상점주를 직접 면담조사 하였으며, 이용자의 경우 노점이용이 가장 많은 오후시간대에 물품구매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는 최종단계로 종합분석과 결론 부분에서는 선행 조사 분석(참고문헌 1, 2 참조)의 내용도 일부 적용하면서 개선방향을 설정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정회원,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강사, 공학석사

표 1. 조사대상지역³⁾

구분	대상지
① 시장 주변	관문, 동구, 봉덕, 중평, 팔달시장
② 아파트 주변	삼익뉴타운, 성서지구, 지산지구, 칠곡지구, 황금주공아파트
③ 간선도로 주변	대구역, 복현오거리, 서부정류장 북비산네거리
④ 도심 주변	동성로일대
⑤ 유원지 주변	동촌유원지, 수성유원지, 두류공원

*이하 표에서 ①, ②, ③, ④, ⑤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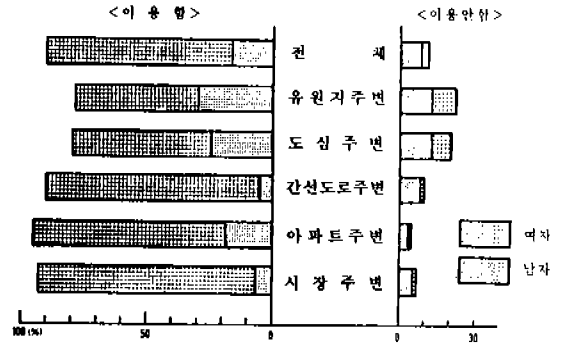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성별 노점상 이용율.

II. 노점 이용자의 의식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

1. 노점상의 이용실태

1) 이용율

응답자의 89.5%는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생활편의시설 구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장 주변의 노점상 이용율이 93.3%로 시장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에는 남성의 이용율이 18.8%로 시장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심과 유원지 주변에는 백화점이나 상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이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이용권

노점상에 오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시장이나 주거지역, 간선도로 주변의 주민들은 노점상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이곳에 오며, 도심이나 유원지 주변의 이용자들은 업무나 쇼핑, 여가 활동을 위해 왔다가 우연히 노점상을 이용하는 충동구매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장, 주거지 주변, 간선도로 주변의 노점상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이용자 유치권은 좁으나 단골 확보 등에 있어서는 상가와 같은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도심이나 유원지 주변의 노점상들은 이곳에 온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유치권은 넓으나 고정고객을 확보하면서 영업하는 노점상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3) 이용동기

노점상의 이용동기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이 편리하기 때문', '상품이 신선하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과 간선도로 주변에서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이 편리하므로, 유원지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서 노점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점상을 이용하는 목적은 시장과 간선도로에서는 경제성이, 주거지 주변에서는 접근성이, 도심에서는 경제성과 희귀성이, 그리고 유원지 일대에서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이웃사랑으로 노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 노점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하고 있지 않다.

4) 이용실태

이용자들이 노점상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품목은 가공식품류이며, 그 다음이 비가공식품류, 피복류와 잡화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주거지역, 간선도로 주변에서는 식품류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공식품류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에서는 피복류, 잡화류 같은 비내구성 물품류와 가공식품류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원지 주변에서는 행락객들이 대부분 조리식품류나 주류 식품류와 같은 가공식품류를 이용하고 있다.

노점상이 상점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경제활동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상점과 노점

표 2. 응답자의 성별 분포

단위: 인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남자	11	22	8	29	20	90
여자	79	74	51	49	27	280
합계	90	96	59	78	47	370

표 3. 노점상 이용실태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경위	우연히	34.1	39.6	40.7	94.3	100.0	54.4
	일부러	65.9	60.4	59.3	5.7	0.0	45.6
이용 품목	가공식품류	37.8	42.1	46.8	34.9	82.5	50.3
	비가공식품류	41.5	39.3	32.8	2.1	2.0	24.1
	내구성물품류	6.7	4.3	4.9	1.9	0.4	3.6
	비내구성물품	8.9	7.2	5.2	49.1	4.7	15.4
	서비스류	2.3	3.5	4.1	4.5	4.5	3.8
이용 목적	저렴한 가격	29.2	26.7	37.5	40.7	24.2	32.0
	편의성	22.0	41.7	14.4	5.7	27.4	23.3
	상품이 신선	14.3	13.3	24.0	4.3	3.2	12.6
	특수물품구입	5.8	6.7	12.6	17.2	3.2	9.4
	좋은 분위기	5.8	2.8	1.9	10.0	32.3	7.7
	이웃을 도움	9.7	4.4	1.9	5.7	0.0	5.0

상에서 상품구입에 사용한 지출금액과 물품의 갯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시장에는 상점과 노점이 품목, 가격에 있어서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구입 금액이나 갯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주거지 주변에는 입주인구에 비례한 적절한 상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시장보다는 이용횟수나 금액에 있어 노점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는 노점이나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갯수는 거의 같으나, 상점에서 구입한 액수가 노점보다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급재를 취급하는 상가와 저렴한 상품을 취급하는 노점상간에 물품이나 가격에 차별성이 크기 때문으로 도심 상가와 노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원지의 경우 노점상을 이용하는 빈도는 높지만 취급품목 자체가 저가의 조리 및 주류식품이므로 인근 식당이나 상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기존 상가와 노점상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갯수나 액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별성이 큰 경우에는 상가는 고가재를, 노점상은 저가재를 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노점상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이나 종류 등에서 노점상과 상점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지목되어진다.

5) 이용 만족도

노점상 이용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선이나 수리 등의 기술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해 하나, 피복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지역별로는 유원지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장주변에서는 40대 이상이 기술형 노점에, 30대 이하는 조리식품류에 만족해 하나, 젊은 사람들은 주류식품류와 피복류 등에 있어서는 노년층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 주변에서는 과일류와 서비스 노점에 만족해 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피복류에, 40대 이상이 식품류에 불만족해 하고 있다. 간선도로 주변에서는 과일류와 채소류에 만족을, 조리식품류와 주류식품류에 불만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20대와 40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도심과 유원지의 경우는 연령과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2. 노점상에 대한 의식과 태도

노점상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물품 구입의 편리성, 노점상인의 생계유지등의 이유로 노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이용자의 경제성과 편리성, 노점상의 경제성 측면에서 볼때 현 시점에서는 노점상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행정의 단속과 일부 주민의 반대운동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선도로 주변에는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점상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거나, 적절한 상가시설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노점상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노점상들은 무질서하게 공공 공간을 점거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며, 차도나 인도 상에서 영업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므로 노점상이 인지는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불결한 환경속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위생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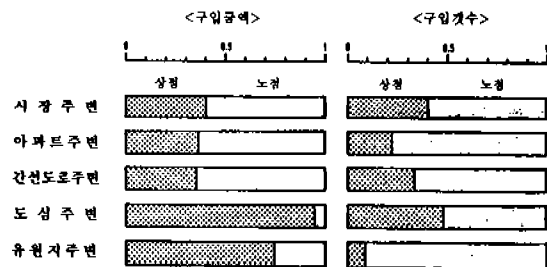


그림 2. 노점과 상가의 이용실태 비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조리식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식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일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소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어 물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식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품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사용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복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잡 화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술 형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기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대 이하,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이상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 사례지구에 없는 업종임.

그림 3. 노점상 이용의 만족도.

향후 노점상에 대해 이용자들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적은 반면 때와 장소에 따라 융통성있는 단속을 요하는 온건파와 노점상들의 상행위는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묵인하거나 양성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점상에 대해 이용자는 주생활에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상업시설이 없는 한 노점상은 불법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인접상인의 의식

표 4. 노점상에 대한 의식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여부	필요	85.3	82.2	70.9	84.6	82.5	81.1
	불필요	14.7	17.8	29.1	15.4	17.5	18.9
필요한 이유	상인 생계유지	26.0	11.0	15.0	22.7	9.2	18.3
	가격이 저렴	29.3	40.3	38.8	37.9	38.6	36.1
	상품구입 편리	26.7	28.6	12.4	3.1	15.9	18.5
	좋은 분위기	5.3	1.9	8.8	7.6	22.7	6.8
	몰건이 신선	5.3	13.7	1.3	4.5	6.8	7.1
대책	묵인	16.5	19.8	3.4	12.8	25.9	15.1
	양성화	17.6	10.4	3.4	7.8	14.8	10.7
	곳에 따라 단속	47.1	43.8	50.8	50.0	40.7	47.0
	적극 단속	9.4	17.7	32.2	11.5	11.1	16.2

노점상의 입지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층이 노점상과 인접해 있는 기존 상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 본다.

1. 노점상과의 상호기여도

노점상과 주변 상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2.4%로 나타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노점상과는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 노점상이 많은 시장 주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인이 주변 노점상의 판매일을 도와주거나 수도, 전기를 제공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가 11.6%로 나타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노점상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의 상인들은 노점상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의 노점상은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이 대부분으로 서로 모를 뿐만 아니라 상점주와 노점상과의 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상인들은 주변에 노점상이 있음으로써 고객유치와 활발한 매매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상인도 절반 가까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

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상호 상부상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유대관계가 없고, 도움도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점상 단속에 관한 인식

주변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의 34.2%가 노점상으로 인해 다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거지 주변의 상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노점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노점상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가 61.1%, 오히려 주변 노점상으로 인해 이익을 본다는 사람도 4.7%로 나타나 노점상과 인접 상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노점상 단속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상점주가 전체의 16.9% 밖에 되지 않는 것에서 주변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인 건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이 노점상 단속을 건의한 이유로는 '주변 노점상들로 인해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가 42.2%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노점상들이 상가에 경제적 손실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악취나 청소미비 등으로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기 때문'이 30.3%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과 도심 주변 상가는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 단속을 계속할 경우 이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타격을 줄 것이다'가 50.5%로 나타나 노점상들의 상행위가 그들의 생

계유지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종합분석 및 개선방향

노점상의 입지 유형과 활동패턴 그리고 이용자, 노점상, 주변 상인들의 의식조사 등을 종합하여 노점의 이용패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점상 이용패턴

본 연구를 위해서 관찰조사한 내용⁴⁾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노점상 이용율, 이용동기, 상가와외의 이용실태 비교 등을 토대로 이용객의 행동패턴을 모형화시키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⁵⁾.

시장형과 간선도로형은 상점이나 노점상이나를 정해놓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구매장소에서 상점과 노점상의 제품,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구매자의 선택행동이 단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점상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온 경우와 우연히 노점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점과 노점상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상점·노점 균형형을 나타내고 있다.

도심형은 백화점이나 상점에 비해 노점상의 비중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 노점상이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점상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이 곳까지 오는 사람은 매우 적으며, 백화점이나 상점에 왔다가 우연히 노점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곳에서 지출한 금액을 보더라도 노점상에서 이용한 금액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상점에 비해 노점상의 비중이 매우 약한 상점우위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비해 주거지형은 전술한 양자의 중간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지형은 이곳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노점상을

표 5. 노점상과의 상호관계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
응답자 수(명)		89	37	21	43	180
유대관계	매우 친합	8.3	0.0	0.0	0.0	3.8
	조금 친합	19.0	0.0	0.0	0.0	8.6
	모르고 지냄	61.9	83.8	85.7	81.4	73.5
	다소 불편	8.3	16.2	14.3	18.6	13.0
	매우 불편	2.4	0.0	0.0	0.0	1.1
도움	도움을 줌	20.3	9.5	8.9	0.8	11.6
	도움을 주지 않음	79.7	90.5	91.1	99.2	88.4
좋은 점	고객유치에 도움	36.0	18.9	9.5	20.9	26.3
	바쁠 때 도움받음	20.2	0.0	0.0	0.0	9.5
	분위기가 좋아짐	9.0	10.8	14.3	25.6	13.7
	좋은 점이 없다	34.8	70.3	76.2	53.5	50.5

*유원지 주변에는 상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설문에서 제외시켰음.

표 6. 단속과 노점상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
피해 여부	피해가 있다	33.5	49.2	38.7	11.9	34.2
	피해가 없다	56.4	46.9	54.2	81.4	61.1
	이익이 있다	10.1	3.9	7.1	6.7	4.7
단속을 건의한 이유	장사가 안되서	42.1	50.0	60.0	20.0	42.4
	주변환경이 불결	36.8	25.0	0.0	40.0	30.3
	동행에 지장을 줌	15.8	0.0	20.0	0.0	12.1
	미관상 좋지 않다	5.3	25.0	20.0	40.0	15.2
단속시 생계 실태	타격을 준다	36.0	48.6	33.3	30.2	50.5
	별 타격이 없다	9.0	8.2	19.0	34.9	15.8
	다른 방도가 있다	22.5	40.5	42.9	27.9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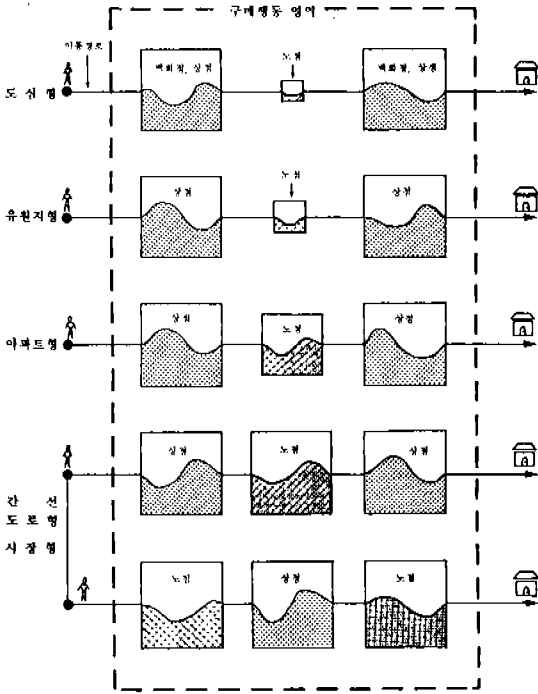


그림 4. 유형별 이용객의 행동모델.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점상은 대체적으로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달리 상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노점상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형태도 상점우위형에 속한다.

2. 노점상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개선방향

노점상의 입지유형에 따라 활동행태나 기여도, 문제점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인근주민이나 상인들의 의식과 존속여부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입지유형별 노점상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점상의 입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형은 단속보다는 시설물 재배치 등 물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노점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것이 좋으며, 노점상과 상가와와의 연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시킨다. 단, 무조건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이나 주변 도로폭, 보차분리 여부,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시장내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곳과 시장 입구나 버스정류장 일대, 횡단보도 상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장 주변의 폭이 넓은 인도와 도로사이에 0.5-1 m 정도의 디

자인된 낮은 벽을 설치하여 노점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며, 미관상으로도 크게 지장을 주지않고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여 영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거지형은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에 의해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동주택 설계시 공동주택의 담을 기준보다 후퇴(set back)시켜 담쪽으로 노점상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노점상의 규모나 품목, 영업시간, 노점상의 수 등을 제한 허용한다. 그러면 보행자 통행에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으며, 도로쪽으로 노점상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통행에 혼잡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⁶⁾. 허가받은 노점상들은 쓰레기 처리문제, 위생청결 문제, 소음 등 제반 규제에 따라서 영업을 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간선도로형은 교통흐름과 도시 이미지 차원에서 노점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노점상의 개별속성을 조사하여 그 수준에 따라 영업가능 장소를 지정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도심형은 시간차를 이용하여 야간 활용도가 낮은 공간에 한시적으로 노점상 지구를 개설하도록 한다. 도심과 같은 업무지역에서는 상점이나 회사들이 저녁에 거의 영업을 끝마치므로 상가앞이나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일정 시간제의 영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노점상들의 상행위를 허가함으로써 도시의 활기를 되찾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공휴일에 평일 노점상의 10배나 되는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집중하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의 위치, 판매형태 등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원지형은 공간적으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형태, 취급품목 등이 주변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영업을 허용할 경우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상에서 노점상의 존속여부는 지역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하고, 노점상들이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건전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V. 결 론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자본주의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 산물로서 생겨난 노점상은 입지적인 잇점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유통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경제활동의 한부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행위로 인한 통행장애·위생과 미관저해 등의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깊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단속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대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의 활동형태 및 사회의식을 그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하여 유형화시켜 봄으로써 노점상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현황 그리고 장래 노점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첫째, 노점상의 발생은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주변에서는 시장입구나 횡단보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정문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인도의 가장자리나 남쪽에 선적으로,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네거리나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장소에 점적으로 발생하며, 도심의 경우에는 휴일을 이용하여 문을 닫은 상가 입구와 행인의 발걸음이 빈번한 보행전용도로의 중앙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아파트나 주택지 주변에서 활동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일정한 건물이나 상·하수도 시설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나 악취, 소음 등에 있어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영업을 끝난 후에도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품진열에 필요한 상자, 리어커 등을 폐비닐이나 합지로 덮어 영업을 하던 장소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돌아가므로 주거환경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노점상인과 이용자 및 인근 상인의 측면에서 노점상의 사회적 위치를 규명해 보면, 노점상들은 그들의 상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접근의 편리성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 상인들도 자신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별 문제없다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노점상이 통행장애와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주거환경문제를 야

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선진국의 노점상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⁷⁾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점상인과 이용자 그리고 인근상인 모두가 한 번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IMF시대에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은 과거의 노인층에서 소일거리로 행하는 노점상 혹은 일부 주부나 가장들이 영업을 온 행태와는 상이하게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형태로 변한 노점이다. 이러한 행태변화에 따라 노점상의 상행위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적절한 대책이나 처벌규정없이 일시적이며 국지적인 단속과 철거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노점상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정 장소나 시간 그리고 품목 등을 지정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제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장래 쾌적한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은 과감히 단속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 1) 대구 매일신문 1998년 1월 21일과 3월 6일자에 “생계형 노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 2) 참고문헌 1, 2 참조(이하 선행연구)
- 3) 노점상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에 대한 이용자와 주변상인의 의견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정한 노점상의 행태특성과 상호 연계시켜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대상지를 동일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4)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노점상의 유형과 활동 패턴 조사연구에서 노점상과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관찰조사 한 바 있다.
- 5) 그림 4의 노점상과 상점을 나타내는 사각형 면적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수량화시킨 것이 아니라 관찰조사 등의 결과에 의한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모델화시킨 것이다.
- 6) 단, 주거지 내의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제한받는 인접 대지와와의 거리 등 제규제의 완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

7) 참고문헌 1의 p. 115 참조.

참고문헌

1. 김한수, 양민화(1997).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8권 2호.
2. 김한수, 양민화(1997).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

- 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II).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8권 3호.
3. 김한수(1994). 주택단지 내부의 상업시설 입지와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0권 8호.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 방안.
5. 今野博(1990). まちつくりと歩行空間. 鹿島出版會.
6. 小林重敬編(1995). 協議型まちづくり. 學芸出版會.